

세상의 틀을 바꾼 하나님의 복음

- 복음으로 여는 호세아-

호세아1:1-4. 로마서9:25-26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저희를 창조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니다. 그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교회와 성경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다시 굳게 붙잡고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필리핀에 선교캠프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건물을 참 많이 지으신다. 팔라완에 갔는데 숙소 앞의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가방을 들고 올라가는데 고생을 했다. 건축을 할 때 계단의 각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공사를 하여 가파르게 완공이 되었다고 한다. 강원도에 가보면 다리를 높게 만들고 터널을 만들어놓았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터널과 다리는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다면서 신기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말씀드렸다. “선교사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관심이 생긴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법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할 정확한 신앙의 목표를 알고 있으면, 그 과정에서 답을 알고 있고, 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 그것을 가지고 실의에 빠지고, 실망과 낙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일본에 처음 갔는데 누가 말하기를, 동경의 지하철이 너무 복잡하다고 한다. 그래서 저쪽 통로로 가자고 하고 똑바로 해서 나오면 다른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너무 고생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나침반을 사가지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지도와 나침반을 가져갔던 일이 있었다. 노획의 목사님들도 같이 어렵더라도 영어도 못 하는데 잘 찾아다니신다. 왜 그런가. 어디 가야 할지 목표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지. 이와 같은 일을 오늘 호세아서에서 알 수 있다.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모른다. 어떤 모습을 좇아야 하는지 잘 모른다.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왔을 때 거의 불신자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발전이 없다. 길이 조금 다르더라도 방향을 안다면, 막다른 길이면 돌아가고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얼마 전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믿음도 좋으신데, ‘저분은 아직 해답이 안 났다.’ 했다. 그리스도, 복음, 전도 한 마디도 안 나온다. 그냥 어디를 가든지 좋은 강의를 들으러 가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면 깨닫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한 마디를 안 해도 그리스도를 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그 응답을 받게 된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한다. 호세아서가 구약성경 중에 소선지서 중 하나이다. 호세아서의 저자는 선지자 호세아이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이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와 같다. 호세아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 따지면 예수이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가 히스기야 왕 시절이었다. 그 때는 남유다가 풍성하고 좋은 시절이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셔서 더 어려운 미션을 주셨다. 호세아는 너무나도 이사야 선지자가 부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너무나도 복음적인 내용이 있다. 호세아서는 그렇게 주옥같은 메시지는 없지만 사실적으로 호세아는 복음의 삶을 몸으로 살았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메시지를 아무리 들으면 뭐하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그가 대신 상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 생기기 뚱기, 욕심, 내 판단이 나오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정죄한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호세아의 기록의 목적은 음탕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신다. ‘너는 저 음탕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음탕한 자식을 낳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고멜이 음탕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의 남편을 떠나서 세상을 음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여자를 데려와서 다시 너의 부인으로 삼으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 오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라고 볼 수 있겠다.

1. 세상의 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사람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는 것이다. 유대인처럼 적용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과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손이 범죄 하면 손을 잘라 버리라. 과정법이다.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면 죽이겠다. 망하게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신다. 구약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지금까지도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너 나중에 그러다가 거지된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가만 안 뒤.’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근데 어떤 아이는 학교만 가주면 너무 고맙다. 신앙도 마찬가지로이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가문이 몇

대 믿는 분도 계시다. 훈련 다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어떤 분은 주일에 나타나기만 하면 감사하다. 어떤 분들은 다 이해해주고 우리가 기다려줘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남편은 무슨 잔소리를 해도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이 계시고 하면, 어떤 남편은 한 마디만 하면 소리를 지른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이 적절하게 지혜롭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 호세아에게 엄청난 미션을 주셨다. 믿음만 하나가 미션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미션을 줬는데 호세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미션을 실현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냐 하면, 지금 이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는 것이다. 어제 돌잔치를 해야 하는데 태풍이 와서 연기되었다. 하루 전에 생각할 때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한다. 그러나 그 때에 가보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직면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미리 불신양하고 말도 안 듣고 한다면, 실패한다. 그래서 불순종, 불신양은 언제나 할 수 있다. 그러나 no 해놓고 yes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체질적으로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아멘하기를 바란다.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그래놓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자신의 윤리, 도덕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보겠습니다.’ 하신 된다. 사법고시를 몇 번을 떨어지고 불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어떤 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자.’ 하고 전도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봤다고 했다. ‘내가 한 번 교회를 안 가면 모르겠는데, 기독교의 역사가 몇 천 년인데 내가 가보지도 않고 안 믿으면 안 되지 않겠다.’ 하고 진짜 할 때는 잘 믿어보자 했다고 한다.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멘으로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보면 된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들수록 뒤집어보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기준은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가 많다. 그 때 나의 옳고 그릇된 기준을 깨지 못하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직장은 왜 저러지? 교회는 왜 저러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서밋에 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 설 수 있는 복음의 기준을 보여주었고 있다. 오래 믿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축원한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다. 육아시설에 어떤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분이 자기 집에 갔더니 아이 10명을 키우고 있었다. CD로 된 찬송가가 아주 많았다. 왜 이것을 샅샅이 물어보고 기독교 기관에 있는 육아시설에 갔는데 찬양을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찬송을 배우고 싶어서 샅샅이 샅샅이 보고선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은 진짜 제자구나.’ 굉장히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더라. 자세가 다르다. 세가죽이라고 교회란 이런 곳이고,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주보만 보면 다 안다. 시골에서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온다. 내가 알고자 하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바로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따라오라고 해서 바로 제자가 되지 않았는가. 조금씩 해서 언제 제자가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굉장히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 목사가 어느 날 매춘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탈리아의 어떤 정치인의 부인이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남성 잡지의 누드 모델이다. 우리의 기준이다.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저 영적지도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할 수도 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목사가 초등학교 교사와 재혼을 하셔서 알콜당콩 잘 사셨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주부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너무나도 보기 싫었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옮겼다. 이해가 되긴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이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다시 하신 것이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인데, 과거에 죽은 부인을 생각하면서 혼자 그렇게 살아야 하겠는가. 복음 안에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내 자식, 내 문제는 얼마나 넓게 이해를 하는지 모른다. 내가 아는 그 분도 얼마나 따지고 잔소리가 많은데 자기 자식 문제에는 관대하다. ‘이래서 괜찮다.’ 얼마나 따뜻한지 모른다. (웃음) 그 모습으로 교회에서 헌신, 직장생활에서 헌신하기를 바란다. 그 모습으로 인간관계를 하셔야 한다. 이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기준을 복음으로 바꾸라.

(2) 자녀들의 이름을 아주 안 좋은 이름으로 짓는다면 어떨겠는가. 충청도에 계신 한 목사님은 메시지 나오는 대로 이름을 짓는다고 한다. 임신한 새댁들이 엄청 기도한다고 한다. 다음 메시지에 좋은 단어 나오게 해달라고(웃음) 각인, 체질, 뿌리 메시지가 나오면, 감각인, 이뿌리, 박체질이 된다.(웃음) 호세아서를 보면 음탕한 아이를 낳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이름이 김평양인 것이다. 이대동강, 박난지도. 이런 이름인 것이다. 우리의 기준이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라. 두 번째 이름은 로투하마이다.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여러분은 상처 입을 것이다. 우리가 강조할 것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흘러 지나가는 것이다.

(3) 착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다가 매춘부로 팔려간 여인을 거금을 주고 다시 사오겠는가. 나는 그런 분을 봤다. 아는 삼촌이 계시는데 부인이 춤바람 나서 나가면 다시 데려오고 나가면 다시 데려오곤 했다. 대단하다고 하니 ‘내가 6.25시절에 어려움을 당하고 교야로 살았는데 우리 자식도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그 아내 분은 옆에서 ‘남편 잘 만났어.’ 절박해서 없이 이야기하더라.(웃음) 사실은 다 우리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 자기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부족하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온전하도록 계속 나를 채찍질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도 채찍질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 자살하려는 사람에게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한다. 우리가 지혜롭게, 적절하게 말씀을 적용해야한다.

